

# ‘지는 법 잊은’ 임채빈, 새 역사 쓸까

특선급 경주 휩쓸며 46연승 내달려  
강력한 협공세력 반격이 최대 변수  
“상반기 왕중왕전 이전에 넘어설 듯”

돌아온 임채빈(25기 SS 31세)의 기세는 여전했다.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를 위해 잠시 경주를 쉬었던 경륜 최강자 임채빈은 지난주 벨로드롬에 컴백했다. 그는 복귀 이후 곧바로 3연승을 기록해 역대 최다연승 기록 경신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임채빈은 6일부터 사흘간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특선급 경주를 모두 우승하며 46연승을 기록했다. 역대 3위의 기록이다. 역대 2위 조호성의 47연승과는 불과 1승차다. 또한 난공불락의 기록으로 여겨지던 정종진(20기)의 50연승에는 4승이 모자란다. 정종진의 50연승은 홍석한(8기)의 통산 500승과 함께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여겨졌었다.

전문가들은 임채빈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5월 중으로 50연승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채빈은 금요일, 토요일 경주에서 톱시드를 배정받으면 손쉽게 승수를 챙기는 모습이었다. 대상 경주만 피한다면 5승 정도는 무난히 접수할 것이란 견해다. 집중력이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적다.

물론 임채빈의 기록 달성에 응원을 보내는 팬들이 많지만 고배당을 선호하는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특선급 경주에서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임채빈. 복귀 이후 3연승을 기록하며 46연승으로 정종진의 50연승 대기록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팬들 중에는 임채빈의 연승행진이 언제쯤 끊겨 대박을 선사할지 분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정종진이 연승행진을 달릴 때도 비슷했다. 당시 정종진이 착외하는 경주를 소액이라도 맞추겠다는 고배당 팬들이 있었다.

실제로 2018년 3월 정종진은 50연승을 기록한 다음날인 일요일 결승에서 강력한 라이벌인 창원권 윤민우와 이현구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고배당 팬들의 전략이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정종진이 4위로 밀리며 삼쌍승 117.6배의 고액 배당이 발생했다.

임채빈도 정종진의 기록을 넘으면 많은 도전이 기다릴 전망이다. 임채빈의

연승을 끊는 선수는 인지도를 한층 높일 수 있어 도전자들의 맹공은 불가피하다.

첫 난관은 조직력을 갖춘 강력한 협공 세력의 반격이다. 정종진이 50연승에서 멈춘 것도 조직력을 앞세운 창원권의 협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채빈도 힘과 조직력을 갖춘 협공 세력들의 도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임채빈이 이러한 편성을 만난다면 본인의 힘을 믿고 자력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두 번째는 연승에 연연한 소극적인 경주운영과 욕심이다. 연승을 이어가겠다는 욕심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왕중왕전이 고비다. 임채빈의 출전 간격을 고려할 때 왕중왕전 이전에 50연승 돌파가 유력하다. 하지만 50연승을 넘어 60연승 70연승을 가기 위해서는 경륜 강자들이 총출동하는 왕중왕전은 넘어야할 산이다.

예상지 최강경륜의 설계석 편집장은 “불세출의 기량과 월등한 각력을 갖춘 임채빈의 50연승 돌파는 경륜 팬들의 숙원이자 경륜의 부활을 견인할 희망”이라며 “만약 상반기 왕중왕전까지 넘어설 경우 전대미문의 100연승 달성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 2년 만에 재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경륜 일일 명예심판 프로그램은 심판판정, 경주운영 등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륜 고객을 일일 명예심판으로 임명하여 경륜사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8일 1차 운영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격월로 총 4회 진행한다.

경륜 일일 명예심판으로 선정된 고객은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경주운영 현장(심판실, 방송실 등)을 견학하고 심판판정 과정을 참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차별 참가인원을 최대 6명으로 최소화해 운영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객은 경륜경영 스피드온 앱 또는 경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회차별 공지를 통해 시작되며 과거 참가자를 제외하고 접수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가 자전거 25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상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외 아동에 자전거 기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5일 광명시 주최로 열린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지역 소외아동을 위해 자전거 25대(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택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장, 이종구 광명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박덕수 광명시의회의장 직무대행 부의장,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양기대 국회의원(광명 을) 등이 참석했다.

김성택 경주사업총괄본부장은 “전달된 자전거가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광명스피돔, 광명시민체육관,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개 권역으로 분산해서 동시에 개최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 부부 대항전·여왕전…5월 이벤트 경주 꿀잼 보장

미사리 경정장 새로운 볼거리 가득  
최저 체중·최고 체중 대항전도 예고  
상위 6명 출전 여왕전 3년만에 열려

화창한 5월 미사리 경정장에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됐다. 바로 이벤트 경주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제18회차부터 21회차까지 매주 목요일 15경주에 이벤트 내지는 특별 경주가 열리고 있다.

이 기간 경정은 기존 16경주에서 17경주로 한 경주 늘어난 체제로 운영 중이다. 5일 18회차에 열린 경정 부부대항전을 시

작으로 12일 19회차에는 최저체중 대항전, 18일과 19일 20회차에는 특별경주인 경정여왕전과 최고체중 대항전이 열린다. 25일 21회차에는 경정 전국대표 대항전이 펼쳐진다.

첫 스타트로 열린 어린이날 부부대항전에는 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심상철-박설희, 이태희-이주영 커플 외에 안지민-권일혁, 이휘동-김은지, 박준호-임태경 등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부 선수들이 출전했다. 2코스 출전한 이휘동이 우승, 6코스 출전한 임태경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앞으로 열리는 최저체중과 최고체중 대

항전도 관심을 모은다. 최저체중 대항전은 40~55kg의 선수들이, 최고체중 대항전은 60kg~75kg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전국대표 대항전은 서울, 경기, 경상, 충청, 전라, 강원 등 지역 대표하는 1명의 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주다.

5월 경주에서 하이라이트는 경정여왕전이다. 특별 경주로 치러지는 여왕전은 올 시즌 19회차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19년 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이번 시즌은 고참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인상적인데 문안나, 박정아가 3기의 자

존심을 세우고 있고 6기 여성 쌍두마차인 안지민, 손지영도 우승을 노릴만한 강자들이다.

여성 선수들 중 가장 좋은 스타트 집중력을 보여주는 김인혜도 첫 여왕전 우승을 노릴 만하다. 반면 여성 세대교체의 주역이라 평가받았던 김지현이나 반혜진은 최근 디소 부진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여왕전은 아직 출전 선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19회차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 점수가 여유 있는 상위권 선수들의 경우 스타트에서 다소 몸을 사리는 운영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점수에 여유가 없는 선수들은 매 경주 적극적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이외의 이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재범 기자



##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